

# 이슈브리프<sup>\*</sup>



- 광복 70년의 역사적 의미와 통일을 향한 여성의 역할  
이배용 |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 경북 여성 독립운동의 특성과 의미  
한재숙 |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위덕대학교 前 총장
- 강원여성의 항일독립운동과 리더십  
박미현 | 강원여성사연구소 소장, 강원도민일보 이사
-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한국의 비전과 정책과제  
장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up>\*</sup> 젠더리뷰 가을호 "이슈브리프"는 광복70년을 맞아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여성사학회가 공동 개최한 [광복에서 통일로, 여성이 쓰는 한국사회 미래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 중 일부를 학술지 형식으로 수정하여 게재함.

# 광복 70년의 역사적 의미와 통일을 향한 여성의 역할<sup>1)</sup>

이 배 응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원장

## 1. 광복 70년의 역사적 의미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감격스러웠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세월도 그만큼 흘렀다.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 35년 만에 벗어나 광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독립을 위해 불굴의 투쟁에 온 민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 정세와 시대의 흐름을 탄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한민족의 독립역량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 역사의 면면을 보면 암울했던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열은 민족의 DNA가 있다. 어려운 시절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열정을 가지고 온갖 시련을 극복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20세기 한 편린만 보고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평가하는 잣대로만 삼을 수 없다. 오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낸 민족의 저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겸허하게 성찰해야 통일의 길도 바람직하게 열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 70주년에 다시 한 번 민족의 저력을 새겨 보아야 한다.

첫째,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의 경험이 있었다. ‘역사 잇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하였다. 독일 통일의 경험도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되겠지만 한반도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던 신라의 삼국통일의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래된 미래라고 그 통일의 과정에서 수놓았던 이야기들 속에서 교훈과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신라 27대 임금으로 632년에 즉위하여 통일의 길을 넓고 단단하게

1) 이 글은 2015년 8월 13일 개최한 “광복에서 통일로, 여성이 쓰는 한국사회 미래전망”(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여성사학회 공동 주최) 세미나의 기초발표 내용임.

닭은 선덕여왕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인 재등용의 해안이 남달랐다. 김유신, 김춘추 같은 통일 역군을 발탁하여 애국단체, 전사단체요, 교육 단체인 화랑도를 통솔하게 함으로써 고구려, 백제와의 통일전쟁 각축전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였다.

외교력도 뛰어나 주변의 정세와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는 깨달음 속에 이루었던 화합의 자세를 백성들과 함께 다져 나갔다. 백성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양 최초의 천문기구인 첨성대와 거대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민생과 안보를 상징하는 문화 창조의 지혜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이와 같이 선덕여왕이 보여준 통일 리더십은 앞으로 이루어 낼 통일의 길에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한글에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품었던 소통과 화합의 인문정신의 소산이다. 세종대왕의 인간을 소중히 아끼는 진정한 문화리더십은 우리 민족의 가장 본받고 이어가야 할 저력이다. 1418년에 22세의 나이로 조선왕조 제14대 임금으로 즉위한 세종대왕(1418~1450 재위)은 조선이 지향하고 있던 인간주의적 이상을 실제 정책에 성공적으로 구현하여 한국 역사상 최고의 리더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인간주의 정신은 수많은 찬란한 문화 창조의 길을 넓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발명품은 훈민정음이다. 한글은 글자 제작의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며 배우기 쉽고 조직적이며 다양한 표기가 가능하다. 한글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약 8,000개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어 현존하는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발음

을 표기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말과 중국말이 서로 다르며, 한자를 사용하는데서 겪는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화유산이 탄생하게 된 것은 백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때문이었다.

세종의 인간주의 정신에 기반을 둔 포용의 리더십으로 세종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渾天儀), 간의, 해시계, 자동 물시계인 자격루(自擊漏), 강우량 측정기구인 측우기 등의 문화유산은 바로 농업생산력을 높여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세종의 인간주의 정신의 결과물이다.

한편 세종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노비들에게도 마음의 손길을 내밀었다. 세종은 즉위 8년(1426) 관비(官婢)에 대하여 산후(産後) 199일의 휴가를 주도록 조치하였다. 세종의 조선은 신분제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여종이 출산 후 바로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4년 후인 세종 12년(1430)에는 관비가 만삭인 채로 밭에서 일하다 갑자기 산기가 일어나 출산을 하게 되면 태어나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산전(産前) 휴가로 한 달을 주도록 명하였다. 이어 세종 16년(1434)에는 남편에게까지 아이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산후 휴가 한 달을 주게 하였다. 부부 합산 총 160일의 휴가를 준 것이다. 이는 동서고금에도 유례가 없는 최고의 복지정책으로, 어떤 이론에 근거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세종의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독창성, 자주성, 창의성, 자긍심을 심어주어 천 년, 만 년 길을 열었다. 정치, 경

제, 사회, 교육, 국방, 문화, 예술, 과학 등 어느 한 분야도 다루지 않은 것이 없다.

셋째, 우리 역사에는 시대마다 구비 구비 어려운 시절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도전의 정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긍정의 힘이 있다. 96년 전,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이 총칼로 빼앗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 나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일어났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신념과 애국심으로 온 국민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이 거대한 물결에는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종교와 지역의 구분도 없었다. 만주, 연해주, 오사카, 필라델피아 등 해외에서도 독립과 애국심의 마음이 물결쳤다. 일제의 가혹한 무력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 등 독립투쟁에 온 몸을 바친 우리 선조들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3.1운동의 정신은 중국, 인도 등 비슷한 처지의 이웃나라들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3.1운동과 선열들의 계속된 투쟁은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결정할 때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3.1정신에는 우리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이상이 담겨있다. 이 위대한 3.1정신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계승되면서 번영과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이룩한 원천이 되었다. 3.1운동은 자주 독립의 열망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주었다. 3.1운동이 바탕이 되어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고 광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원동력이다.

광복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다. 남북의 분단과 대

치상황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확립했다. 광복 70년 만에 이 모든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역사 대대로 숭한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 왔기에 이러한 위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자주독립을 선언하며 꿈꾸었던 나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꿈은 자손대대로 풍성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이며 또한 “동양의 영원한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나라를 염원하였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손 대대로 풍성한 삶의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안보가 튼튼해야 하며,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경제력이 동시에 뒷받침 되어야 한다.

## 2. 통일을 향한 여성의 역할

올해는 광복 70주년이기도 하고 정전 62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직도 남북 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이 있다.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불신의 장벽’도 쌓여 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 ‘사회문화적 장벽’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도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동질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오히려 적대감과 거부감의 간격은 커지고 있다. 북한은 3대 세습으로 인한 세계적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단순한 포용정책과는 달리 말 그대로 진정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북한의 기존 행태를 불용하는 입장이다.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의 과제는 매우 중대하지만 통일은 목적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당위론적 통일의 주장을 뛰어넘어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진지한 공론의 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이란 남북한 체제가 상호신뢰의 일관성을 가져야하며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 의미의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장애요인은 첫째,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으로 지속성의 결여에 있다. 둘째, 북한의 체제 수호의 우선순위로 인해 대화의 폐쇄성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셋째, 북한의 합의 및 이행 기피 현상이다. 넷째,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나치게 체제가 바뀌지 않아 통일정책의 일방적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때로는 정보와 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그동안 남북한의 이질화는 이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및 언어의 이질화, 가치의 이질화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상호존중성을 가질 수 있는 기본 척도가 된다. 특히 여성들은 세밀하고 부드러운 대처능력이 있기 때문에 통일 준비에 여성의 역할이 지대하다.

첫째, 여성들은 철저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

출 필요가 있다. 통일의 가장 큰 명분은 같은 민족이고 역사공동체였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를 공유하고 시대를 열어 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함께 분단 70년의 역사를 관통해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역사관,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21세기는 명실공히 글로벌 시대이다. 즉 한국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반면에 세계 속에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의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도 남북한만이 잘 지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 그리고 외교적 역학관계를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의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들은 한반도 통일은 세계 평화의 접점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세계적 연계를 확대하여 굳건한 연대를 위해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지금 현시점은 남북한의 이질성 중 경제적인 격차가 심각하다. 우선 북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서히 북한과의 교류의 통로를 여는데 앞장서야 한다.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무에서 유를 창출했던 경험을 전수해야 한다. 여성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식주 생활문화의 경제적 활성화에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넷째, 남북한 교류의 가장 수월성은 문화적 교류이다. 특히 북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함께 자긍심을 이룰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의 문화교류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등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형적 문화유산뿐 아니라 무형유산으로서 설날, 추석 등 민속 명절을 공동으로 등재시키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시풍속 중 현재 남아 있는 미풍양속의 명절에서 화합, 효 사상을 다시 일깨움으로써 그동안 변화되었던 양상들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강한 나라이다. 그 중심에는 어머니들이 있었다. 역사 속에서 남북한 지역적 차이를 가릴 것 없이 어머니의 지혜, 인성교육의 특성을 함께 연구하고 미래를 향한 교훈으로 삼는 것도 동질성 회복의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항상 훌륭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따뜻한 사례들이다. 한국의 어머니상을 통해 품어주고 감싸주는 민족의 영혼을 찾을 수 있다. 그 속에서 변할 수 없는 인간애를 찾을 수 있고 적대감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산가족의 만남의 장을 여는 데도 앞장 서야 한다.

여섯째, 여성들은 진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해야 한다. 아직도 여성들에게는 공적인 사회적 경험이 적어 대의명분을 가지고 서로를 감싸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대범한 결집력이 부족하다. 이제 여성들이 역사의 주류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서로 포용하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 여성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다. 빈곤하다고 자존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좋은 역량을 발견하고 그 능력이 함께 뭉치면 세계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직도 인류가 쓰지 않은 마지막 자원이 여성이라 하지 않았는가?

일곱째, 차세대 여성육성에 앞장서야 한다. 요즈

음 세대별 소통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다. 다음 시대에 기둥이 될 우리 여성의 꿈나무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더 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3·1독립운동에 어린 소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열정으로 민족독립의 희망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 및 통일교육의 중요성이다. 정직, 상호존중의 배려, 인간의 존엄성, 인류 공존의 평화 등 이러한 교육이 남북한 공동으로 시행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덟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여성들의 정체성 확보이다. 현재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로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 자연·생명·평화를 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역사 속의 여성 리더십에 속속들이 새겨져 있다는 의미이다. 전통사회에는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한 협동심과 창의성, 공동체 속에서 나눔과 배려, 자연과 인간의 조화, 평화와 생명 존중의 사상은 한국 역사의 굵이굵이마다 심어준 귀중한 자산이다. 바로 이러한 역사공동체 속에서 피어난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자존의식이 통일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뿌리의식과 정체성을 확고히 지킬 때 포용과 배려의 마음도 넓어질 것이다. 어떻게 찾은 나라인데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자손들에게는 분단의 아픔과 동족끼리의 미움과 갈등을 대물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정한 화합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통일의 길이 밝게 펼쳐질 것이다.

# 경북 여성 독립운동의 특성과 의미\*

한재숙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위덕대학교 前 총장

## 1. 들어가는 말

세계가 동북아중심의 새로운 질서체계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해야 한다. 또한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이 민족 정체성 확립과 한반도의 평화와 항구적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해결 과제임을 공감하여야 한다. 통일의 필요와 가치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에게 통일의 가치와 필요성을 재인식시키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 아젠더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sup>1)</sup>.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관점과 태도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적 탁월성과 내실을 갖춘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내실있는 통일을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과 참여태도는 중요하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갈등에 대해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량과 태도는 인내와 포용의 여성적 특성을 절실하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관점과 태도는 통일의 실질적인 성과를 다질 수 있다고 본다. 여성의 주도적인 사회참여 사례는 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그 평가에 있어서는 늘 인색하였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역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미로운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광복 70주년 그리고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 이 글은 '광복에서 통일로, 여성이 쓰는 한국사회 미래전망'을 주제로 2015년 8월 13일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1)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역경의 독립운동 역사를 고찰해 봄으로써 미래 발전을 위한 지혜를 구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크다. 이 글은 식민지시기 경북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되새겨 미래세대에게 균형있는 역사인식 태도와 국가관 함양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 보고자 한 것이다.

### 2. 경북지역에서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여성은 12명

경북지역민은 경북이 한국 독립운동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경북지역민이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는 근거로는 경북지역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물과 자정순국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한 경북은 계몽운동 등에서 혁신유림이 보여준 혁명적인 변화의 중심지 그리고 제1·2차 유림단의 거의 본고장, 남만주 지역 독립운동의 핵심이 바로 경북사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경북이 한국 독립운동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특히 경북의 독립운동은 전통과 혁신의 통합을 이루었다는 특징이 있다(김희곤, 2013). 독립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경북의 특성은 여성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경북 여성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전통과 혁신을 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유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여성들이 보여준 헌신과 자존의 귀감사례는 경북지역 독립운동의 특징을 보다 뚜렷하게 보여준다.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경북의 여성 독립운동가는 아래의 <표1>와 같이 12인(人)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성 독립 유공자 수가 적은 것은 경북뿐 아니

라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난다. 2014년 국가보훈처 발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남성 13,590인, 여성 241인이다. 유공자로 선정된 여성 독립운동가가 전체 서훈자의 1.7%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35년이라는 독립운동 기간을 고려하면 여성 포상자의 규모는 특히 적다. 그것은 먼저 강한 유교적 전통의 가치와 환경의 영향으로 당시 여성의 대외활동이 지극히 제한되는 성별에 따른 역할구분이 명확했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다. 남성은 대외적인 사회활동이 당연하고 여성은 남성의 대외활동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여성은 주로 부모 봉양과 자녀 돌봄의 역할을 근간으로 가족을 유지하고 주변을 건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 독립유공 후보자의 공식적인 활동상황과 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하는 정부의 독립유공자 선정과정 역시 여성 유공자의 선정을 어렵게 한다. 여성은 조직과 직책 그리고 재판기록 등 활약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활동자료 중심의 양적 근거가 미약하고 당연히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시대적 환경의 차이와 객관적 자료에 절대 의존하는 선정과정으로 인해 독립을 위한 여성 참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여성이 민족과 독립에 관심과 참여가 적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비하되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남성중심의 사회적 편견이 고착화 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시기 독립을 위한 여성의 참여는 국채보상운동, 3·1운동을 비롯하여 부인회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광복군 및 의열투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이루어졌음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표 1〉 경북 여성 독립유공자

성명	운동계열	생몰연대	훈격	출생지
김 락(金 洛)	3·1운동	1863~1929	애족장(2001)	안동
김봉식(金鳳植)	한국광복군	1915~1969	애족장(1990)	경주
남자현(南慈賢)	만주 의열투쟁	1872~1933	대통령장(1962)	영양
민영숙(閔泳淑)	한국광복군	1920~	애족장(1990)	상주
신분금(申分今)	3·1운동	1886~	대통령장(2007)	영덕
유인경(俞仁卿)	애국부인회	1896~1944	애족장(1990)	성주
윤악이(尹岳伊)	3·1운동	1897~1962	대통령표창(2007)	영덕
이병희(李丙禧)	노동운동	1918~2012	애족장(1996)	안동
이효정(李孝貞)	노동운동	1913~2010	건국포장(2006)	봉화
이희경(李熙敬)	하와이 여성운동	1894~1947	건국포장(2006)	대구
임봉선(林鳳善)	3·1운동	1897~1923	애족장(1990)	칠곡
전월순(全月順)	한국광복군	1923~2009	애족장(1990)	상주

자료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전시 자료집 '광복의 밑거름이 된 경북 여성들'(2014)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12인의 경북 여성 사례 역시 다양하고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펼친 여성의 활약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주요 분야별 활동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은 것은 3·1운동이다. 재판기록 등을 통해 참여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신분금과 윤악이는 영덕에서 독립만세운동으로 징역형을 각각 6개월과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칠곡출신 임봉선은 신명여학교 교사로서 학생 50여명을 이끌고 나가 서문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영천의 김정희는 '대한독립만세'를 혈서로 작성하여 깃발로 만들어 만세운동을 전개하여 징역 8개월에 선고되었다. 안동의 김락 역시 3·1운동 과정에서 체포되어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실명하였다.

둘째, 애국부인회와 임시정부 지원활동인데 성주출신 유인경은 여성단체인 애국부인회에서 거창, 밀양, 통영을 통괄하는 대구지부장으로 활약하다 1919년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1921년 만기 출옥하여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또 상주출신 민영숙은 오빠와 함께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법무부·외무부 등에서 근무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셋째, 노동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시도한 경우로 종연방적, 경성제사공장에서 여공의 파업을 지도한 혐의로 13개월과 2년4개월의 옥고를 치른 봉화출신 이효정과 안동출신 이병희가 유공자에 선정되었다.

넷째, 해외 독립운동이다. 중국지역은 무장·의열투쟁의 사례가 많다. 여성 의열투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양출신 남자현을 비롯하여 상주출신

전월순은 조선의용대에 입대하여 한국광복군 제1지대 대원으로 활동하였다. 경주출신 김봉식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입대하여 한국광복군 제5지대와 제2지대에서 활동하였다. 안동출신 김노숙은 7살에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생활하다 18살에 남만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여성무장단체인 부녀대를 조직하여 직접 전투에 참여하였다. 미주지역에서 활동한 대구출신 이희경은 신명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 사진 신부로 도미하여 대한부인구제회에 가입·활동하였으며 영남부인회, 영남부인실업동맹회 등 여성단체를 주도하며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였다.

### 3. 경북 여성 독립운동의 특징적 사례 : 전통과 혁신을 함께 이룬 독립운동

경북 여성 독립운동의 특징은 유교적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가족을 비롯한 국가 등 공동체에 대한 책무성과 자존감을 실천하는 양반 전통을 중시한 것이다. 양반집안 여성으로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하려는 가장의 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정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다 하였다. 특히 자녀들이 투철한 독립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역할을 다 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35년의 긴 시간 동안 독립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동인이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여

성은 또 스스로가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별에 따른 역할의 편견을 넘어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다. 진보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사회운동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독립운동 참여는 폭넓게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의 헌신과 참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운동과 관련한 여성 참여에 대한 적절한 재평가는 사회일반의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적 양반전통을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의 사례로는 첫째, 국채보상운동(1907)을 들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여성의 조직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회운동으로 경북이 중심이 된 운동이다. 국채보상을 위해 조직된 첫 여성조직은 대구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南一洞佩物廢止婦人會)이다. 1907년 2월 23일 정운갑의 어머니 서씨, 서병규 부인 정씨, 정운화 부인 김씨, 서학군 부인 정씨, 서석균 부인 최씨, 서덕균 부인 이씨, 김수원 부인 배씨 등 7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3냥 8돈의 패물을 의연하고 '경고 아 부인 동포라'라는 제목의 취지문을 신문에 실어 국채보상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강운정, 2013). 이후 국채보상탈환회(1907.4), 남산국채보상부인회(1907.6)가 조직되어 활동하였으며, 이어서 경주(국채보상부인회), 김천(김산부인회) 등으로 확대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여성의 조직화를 시도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주로 지역유지의 부인, 양반부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노파 남보(南甫), 기생 앵무(鸚鵡)<sup>2)</sup> 등 다양한 일반

2) 노파 남보는 술을 팔아 5원을 의연(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4일자), 기생 앵무는 100원을 의연(황성신문, 1907년 4월30일자)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적극적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도 운동에 참여한 사례를 통해서도 당시 여성 참여 열기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조직화를 통한 주권회복을 위한 사회운동이다. 국채보상운동은 ‘여성의 근대의식 맹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가정을 넘어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을 재인식하면서 여성도 국가의 일원으로 의무 또한 같아서 국권회복에 힘을 보탬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강윤정, 2013).

둘째, 3대 독립운동가 가문을 지켜낸 김락의 경우이다. 김락은 안동 천전리(내앞마을)에서 도사(都事)를 지낸 김진린과 박씨 부인의 4남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18세에 안동 하계마을 이종업과 결혼하였다. 조선총독부 경북경찰부의 <고등경찰요사>에 따르면 ‘안동의 양반 이종업의 처(김락)는 1919년 3월 수비대에 끌려가 취조를 받은 결과 실명했고 11년 동안 고생한 끝에 1929년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김락은 두 아들이 제2차 유림단 의거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온 지 2년 뒤인 1929년 사망하였다. 김락의 친정과 시집 양가(兩家)는 독립운동을 지속한 대표적인 집안이다. 친정 큰오빠 김대락과 언니인 김우락(석주 이상룡의 부인) 등이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이주하여 만주지역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양산 군수를 지낸 시아버지 이만도는 예안 의진(義陣) 의병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10년 국권을 상실하게 되자 24일간 단식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 이종업은 1919년 제1차 유림단 의거를 이끌다가 병사하였다. 김락은 시아버지 이만도와 남편 이종업, 아들 이동흙과 이종흙, 사위 김용환도 독립운동에 매진하여 3대가 독립유공 포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집과 친정의 가풍을 이어받고 자식들에게

민족 자존과 독립을 위한 실천적 참여가 곧 양반의 책무임을 생애속에서 전파한 김락의 공헌은 지대하다.

셋째, 김우락(1854~1933)과 이종숙(1876~1944), 허은(1907~1997)으로 이어지는 만주지역 항일운동의 기반이 된 임청각의 종부 3대 사례이다. 김우락의 남편인 석주 이상룡은 의병운동, 교육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을 이어오다 국권이 침탈되자 1911년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57세의 김우락은 가족을 돌려하며 유하현에 정착하였다. 이상룡은 독립을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경학사를 세우며 남만주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남편의 독립운동을 위해 김우락은 인내와 헌신으로 지원하였다. 김우락은 이 몸이 남자라면 세계각국을 두루 돌며 세상의 주요한 거사를 다 도모할 것을 여자로서의 사회적 한계를 아쉬워하면서 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를 항일 독립운동가로 키워내었다. 또한 며느리 이종숙과 손부 허은 역시 “항일투사 집안에서 태어나 항일투사의 집으로 시집간 것은 운명이었고, 이천팔백 리 시집가는 길은 앞으로 전개될 험난한 인생을 예고하는 길이기도 했다. 조국의 운명이 순탄했으면 그리 되었겠는가?”라고 회고하면서 대자적 존재로서 귀감을 보았다.

넷째, 독립운동가 남자현은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에서 통정대부를 지낸 남정한과 이씨 부인 사이에 둘째딸로 태어났다. 19살에 안동 일직면 출신 김영주와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1896년 7월 진보면 흥구동 의병전투에서 사망하여 남자현의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다. 이후 남자현은 진보군 진보면에서 효부상을 타기도 하면서 유복자(김성삼)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평범하게 생활하였다. 국권을 상실한 1910년 이후 남자현의 삶은 큰 전환을 맞게 된다. 1919년 3·1운동 당시 서울 남대문교회가 중심이 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으며 3월 9일 만주로 근거지를 옮겼다. 만주에서 남자현은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여성교육에 열정을 다하였다. 길림성 인근지역에 20여개의 교육단체와 교회 12곳을 설립하였다. 특히 여자근학회 조직(1923) 등 교회를 중심으로 여성·교육분야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남자현은 또 3·1운동 이전인 1913년부터 최영호, 채찬, 이하진 등과 연계하며 5년 동안 국내조직에 참여했다(강윤정, 2014). 남자현의 활동은 1927년 ‘길림사건’을 지나면서 비로소 독립운동사에 나타나게 된다. 이후 남자현은 여성교육운동에서 의열운동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전환하여 사이토(齋藤實)총독 암살시도(1927), 일송 김동삼 구출작전 시도(1931), 국제연맹조사단장 릿튼에게 단지로서 작성한 혈서 ‘한국독립원(韓國獨立願)’ 전달을 통하여 독립의 염원을 전하고자 하였다(1932). 만주에 파견된 일본 전권 대사 부토 처단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남자현은 1933년 만 60세로 순국할 때까지 민족이 독립되는 날 200원을 독립축하금을 내놓으라는 것과 손자의 교육을 강조하는 유언을 남겼다. 남자현의 눈부신 독립운동 참여는 1962년 대한민국 정부의 서훈 등급에서도 나타나는데 유관순과 김마리아가 ‘건국공로훈장 단장’을 받은 것과 달리 남자현은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건국공로훈장 복장(대통령장)’에 추서되었다. 1993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어 남자현의 독립운동 업적을 선양하였다. 영양군은 1954년 삼의열사기념회에서 삼의각을 건립하고, 1999년 남

자현의 생가를 복원하였다. 2012년에는 남자현에 관한 평전 <나는 조선의 총구다 - 일제의 심장을 겨누는 독립투사 ‘만주의 여호’>가 출간되었다.

다섯째, 일송 김동삼의 아내인 박순부(1882~1950)는 1911년 남편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였다. 이후 만주에서 박순부가 남편 김동삼을 만난 것은 단 두 번에 불과하였다. 시동생 김동만이 간도참변으로 무참하게 학살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당당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박순부가 여성, 아내의 가치를 넘어 독립운동가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 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김동삼과도 부부의 관계를 초월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에 대해 평생 불평 한마디 없었고 말없이 참고 침묵으로 살아온 시어머니의 일생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시아버님께서 직업혁명가로 평생을 국권회복을 위해 공을 세웠다면 그 속에는 시어머니 몫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며느리 이해동의 회고에서도 박순부의 운동가적 생애를 확인할 수 있다.

#### 4. 경북 여성 독립운동의 한반도 통일시대에 미치는 함의

경북 여성 독립운동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유교적 가치에 입각한 양반 여성의 주도적이고 헌신적인 참여이다. 국가와 이웃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과 책임의식을 실천한 것은 오늘날 사회지도층이 좌표로 삼고, 후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선양해야 할 민족정체성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유공자로 선정된 남자현, 김락 이외에도 임청각 종부 3대와 일송

김동삼의 부인 박순부의 경우 재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이외에도 양반여성의 귀감사례로 자정순국한 봉화출신 권성의 경우도 재평가 해 보아야 한다. 남편의 자정순국을 따른 헌신적 아내라는 제한적인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순국의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와 후세가 강한 독립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헌신적 실천을 했다는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경북 여성 독립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진보적 여성단체의 활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조선여성동우회, 신간회, 근우회 등의 대표적인 여성 조직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영역을 통한 활발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 신여성인 영천출신 백신애, 대구출신 정철성과 이춘수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 항일운동가이자 계몽가인 백신애는 조선여성동우회 집행위원과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하며 진보적 여성운동과 항일운동을 하였다. 특히 순회강연을 통해 독립의 신념을 실천적으로 전파하였다. 금죽(錦竹)이라는 기생 이름을 가진 정철성과 이춘수는 함께 1923년 대구여자청년회를 창립하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4년 조선여성동우회 집행위원으로 함께 활동하는 등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주도하였다. 1927년과 1928년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으로 각각 활동하며 한국근대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농민운동으로는 1920년대 풍산소작인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안동출신 강경옥(1850~1927)이 대표적이다. 7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풍산소작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자신의 패물을 팔아서 풍산소작인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사회

단체장으로 강경옥의 활동을 기리고자 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무산된 사실을 보더라도 강경옥의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이었고 영향력이 컸던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여성의 사회운동과 강경옥의 농민운동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점이 크다. 진보적 관점의 사회운동은 새로운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독립운동의 확산과 지속을 위한 중요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해방 이후 분단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 역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과 남성중심적 평가기준이 일정하게 적용되었다고 생각한다. 진보적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과 농민운동에 참여한 여성 운동가들의 업적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못한 것이다. 독립운동 과정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관점을 지닌 운동가들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다. 특히 새로운 통일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제한을 극복하는 시도가 중요하다. 독립운동의 과정에서는 독립을 위한 활동 성과와 의의가 우선적인 중요 변수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출신 등 계층적 요인으로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재평가하고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림1]과 같이 여성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집안의 가계도를 작성하고 해석을 시도한 김희곤의 연구는 의미가 크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와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인식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역사 속 여성인물의 발굴과 선양을 위한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노력 역

시 의미가 크다. 지역민의 지역정체성 고양을 위해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경북 정체성 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인물 선양사업을 통해 역사적 여성인물과 함께 현재 활동하는 여성인물 발굴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추진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는 여성연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한 역할이 바로 ‘역사 속 여성인물의 발

굴과 선양’을 위한 연구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들만의 리그’로 그치지 않고 지역민의 의식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역사 영역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이 병행추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인물에 대한 관심이 일반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료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전시 자료집 ‘광복의 밑거름이 된 경북 여성들’(2014)

[그림 1] 임청각 종부 3대의 가계도

## 5. 맺는말

독립유공자 지정을 위해서는 신문,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자료에 입각한 유공자 지정은 독립운동의 지속과 확장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대부분은 돌봄과 양육을 통한 가정의 유지, 남편과 아들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헌신하는 역할에 전력하였다. 또한 기존 자료에 근거한 유공자 지정에 있어서도 여성 사례에 대한 발굴과 평가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당시 언론과 수행자카드, 재판 기록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례 발굴을 해 가야한다.

경북 여성 독립운동의 사례에서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성의 주도적인 독립운동 참여는 지속되었다. 전통에 기반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 하려는 여성의 자존적 사례와 함께 시대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는 적극적인 독립운동까지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선양(宣揚)하는 방법과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국격이 고양되고, 국가의 통합과 국민의 자존감이 고양될 것이다.

통일은 미래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임과 동시

에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제한에 따른 사회운동에 대한 유공자 지정이 그 예이다. 이념지향성의 차이를 넘어 독립유공자를 지정하고 균형잡힌 평가를 위해 통일은 중요하고 또 통일의 과정에서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는 나라와 시대의 발전을 위한 순리이다. 여성성을 의미하는 헌신, 포용, 통합의 가치와 함께 미래사회를 위해 강조되는 나눔, 봉사, 창조의 가치 역시 여성성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주의에 바탕한 미래가치의 확산을 통하여 공생과 생태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아가하며 그 중심에 여성이 있음을 확신한다.

#### 참 · 고 · 문 · 헌

- 강윤정(2013). “일제강점기 경북 여성의 민족운동: 국내활동을 중심으로”. 2013 경북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 자료집. 경상북도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강윤정(2014). “만주를 울린 영랑의 여장부, 남자현”.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희곤 · 강윤정(2012). 「경북의 독립운동사Ⅱ」 경상북도
- 김희곤(2013). “한국 독립운동과 경북 여성”. 2013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 자료집. 경상북도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2014). “광복의 밑거름이 된 경북 여성들” 기획전시 자료집
- 경북 여성인물 탐방가이드북(2012). 「여행(女行)을 여행(旅行)하다」 경상북도 · 경북여성 정책개발원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14).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13). 「길을 만든 경북여성」
- 이상국(2012). 「나는 조선의 총구다 - 일제의 심장을 겨누 독립투사 ‘만주의 여호’ -」 세창미디어

# 강원여성의 항일독립운동과 리더십<sup>1)</sup>

박 미 현  
강원여성사연구소 소장, 강원도민일보 이사

강원여성의 항일독립운동은 규모있게 조직화되고 지속적이지는 않았으나 선각 여성들은 지역사회에 항일정신을 환기시키고 동료 여성을 일깨우면서 저항해왔다. 험한 산악이 중첩돼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이 원활치 않은 고립된 환경에 여성교육 기관마저 열악한 여건 및 사회적 차별을 딛고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판결문, 경찰신문조서, 신문기사 등 당대 자료 및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일제강점기 강원여성의 항일독립운동을 살펴보고, 항일독립운동에 매진한 강원여성이 21세기 여성 역할모델로서 유효할 수 있는지 여성의병단을 조직해 활약한 윤희순(1860~1935)을 사례로 리더십 측면에서 조명했다.

## 1. 강원여성의 한말 항일운동

### 1) 의병투쟁

한말 일본의 야욕과 침탈에 맞서 무력 투쟁한 의병운동은 1894년 갑오의병을 시작으로 1895~1896년 을미의병, 1904~1907년 을사·정미의병, 1910년 국권 상실이후 의병운동까지 25여년 전개됐다. 한말의병전쟁 연구나 의병운동사 기술에 있어서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문헌 자료가 절대적으로 빈약해 여성의 의병활동에 대한 실제 파악이 어려워 의병투쟁은 여성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강원여성의 의병활동상이다.

윤희순이 작성한 의병가사와 격문, 자서전, 편지글이 담긴 『윤희순의병가사집』, 『고흥류씨 항재네

<sup>1)</sup> 이 글은 "광복에서 통일로, 여성이 쓰는 한국 사회 미래 전망"을 주제로 2015년 8월 13일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해평윤씨 가정록 친서』 등과 윤희순의 숙모 함안 이씨(1873~1954)의 편지글 「성재선생댁」은 한말 여성의 의병운동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고있다. 1981년 후손의 사료 공개로 뒤늦게 존재가 알려진 윤희순은 변복령과 단발령에 공분했던 남성과 달리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윤희순은 1895~1896년 을미의병 때 인근 여성들의 항일의지를 촉발해 「안사람 의병가」, 「병정노래」 등의 의병가사와 「왜놈대장 보거라」 등의 격문을 배포하는 선전 활동과 식량 의복 등 보급품을 조달했다. 윤희순과 의암댁 전주이씨(1875~1951), 최골댁 원주원씨(1874~1932)는 남자로 변장하고 춘천에서 제천까지 걸어 오가며 정보활동을 전개했다.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으로 촉발된 1907년 정미의병 때는 시아버지 류홍석을 의병장으로 해 의병진이 서울 진격을 목표로 남면 여의내골에서 전투 준비를 하자 여성들은 무기, 탄약 등 군수품 제조와 군자금 모금, 식량 공급, 물자 조달 등 전쟁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9월 가평 주길리에서 전투를 치렀으나 패전하는 바람에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일제는 그해 11월 춘천 남면으로 침입해 의병전쟁 주도자 집을 방화해 의암댁 전주이씨, 향와댁 순천박씨, 정문댁 전주이씨, 약암댁 영양천씨 집이 소실돼 주거 터전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당했다.

윤희순이 남긴 사료에는 이름 없는 여성의병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남북 차림으로 활동한 의암댁 전주이씨의 남편은 을미의병 당시 호좌의 병대장으로 친일 관료를 처단하고 13도의군도총재를 지낸 류인석(1842~1915)이다. 최골댁 원주원

씨의 남편은 을미의병 및 정미의병에서 활동하다가 평 주길리 전투에서 전사한 류영석(1875~1907)이다.

의병에게 식량을 제공하며 윤희순을 도운 ‘턱골댁, 벌골댁, 정문댁, 최골댁, 의암댁, 용문댁, 소리댁’에 대해 살펴보면 턱골댁 진천송씨(1875~1914)의 남편은 정미의병투쟁으로 부상당한 류제곤(1877~1948)이다. 정문댁 전주이씨(1866~1912)는 의병투쟁 물적 토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류종악(1843~1909)이 시아버지이다. 소리댁 연일정씨(1856~1925)의 남편은 을미의병 정미의병에 걸쳐 활약한 류봉석(1857~1909)이다. 여성의병 회합 장소를 제공한 영양천씨의 남편 류태석(1858~1933)도 을미의병과 정미의병에 걸쳐 활약했으며, 사돈은 춘천의병장 이소응(1852~1930)으로 여성의병은 자신 뿐 아니라 남편이 의병전쟁에서 투쟁한 부부의병이며 시부, 시동생, 사돈 등도 동참한 의병가족이 대다수로 1940년 9월 중국에서 창설된 광복군 소속 여성대원들의 초창기 주요 활동이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병력 모집과 선전 활동이었음을 상기할 때 춘천 여성의병단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 2) 국채보상운동

1907년 국권 회복 일환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 당시 여성들은 남성과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별도로 단체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는 등 의연금에 적극 나섰다. 강원지역 여성 최초로 국채보상금을 의연한 내용이 보도된 것은 1907년 3월 27일로 남성에 비해 그다지 늦지 않다. 초창기 국채보상운동

에 참가한 강원여성들은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됐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강원여성의 국채보상운동 참여는 선각 일부 여성에 한하고, 조직적인 운동으로 더 확대 발전되지 않은 한계는 있으나 경제력이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항일의 병전쟁이 전개되는 악조건에서 1909년까지 의연금금을 내놓은 사실을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의무금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릉지역에서는 여성의 의연금 출연을 계기로 모금이 본격화됐다. 강릉 유생들은 향교에 모여 의연금을 내기로 의논을 모으고 유생은 매 호 1환 50전씩 의연금금을 걷기로 통문을 발송했으나 국채보상금을 억지로 내라는 것은 문제라는 이의가 비등했다. 물의가 일어나자 내부주사 최종락이 강릉 유생들에게 편지를 보내 국채보상금을 강제로 각 동리에서 분배하는 것은 사리에 온당치 못하니 정지하라고 하는 등 논란이 일어 국채보상운동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을 때 강릉군 퇴기 8명이 솔선해 의연금을 신문사에 보냄으로써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불을 지폈다. 강릉군의 관기로 있다가 물러난 퇴기 초옥, 경선, 신춘, 춘영, 금선, 월선, 금향, 옥선 등 8인은 국채보상금으로 6환50전을 모아 황성신문사에 보냈다. 여성이 국채보상금을 가장 먼저 기탁한 사실은 단연 지역사회에 화제거리가 됐으며 ‘강릉 팔선(八仙)’이라는 제목으로 황성신문 1907년 3월 27일 2면에 보도됐다.

강원지역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을 목적으로 한 여성단체가 별도로 조직되지 않았으나 화천군부인회에서 조직적으로 모금한 사실이 있다. 화천지역에서는 1907년 3월부터 1908년 1월까지 화천지

역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됐는데 화천군부인회가 조직적으로 여성 참여를 권장한 결과 20원을 황성신문에 기탁한 사실이 황성신문 1907년 7월 13일 3면에 소개됐다.

철원군에서는 여성의 국채보상운동 참여가 화제가 되어 ‘부인 출연’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5일 1면 보도되었다. 철원 서변면 이현리 사는 전 주사 이범하의 어머니 김조이와 부인 엄씨, 그리고 이봉하의 어머니 윤조이와 부인 심씨가 국채보상의금 10원과 은가락지 2개를 국채보상기성회로 보냈다는 내용이다.

인제지역에서는 가족단위로 의연하면서 여성들이 명단에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인제군 상도리의 한면우 집안에서는 30명이 의연했는데 여성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여성으로는 어머니 문씨, 계모 권씨, 서모 김씨와 안씨 각 25전, 부인 김씨와 박씨, 계수 최씨 채씨 오씨 각 20전, 여동생들과 딸 9세 질녀 2명 각 15전, 여종을 포함한 노비 4명 각 10전을 의연한 사실이 황성신문 1907년 4월 15일 3면에 실렸다. 인제 정태일 집안에서는 어머니 김씨가 아버지, 아들과 동일하게 각 50전, 부인 고씨와 계수 김씨 각 20전, 14세 여동생 20전 등 전체 가족 8명 중 4명이 여성이 기부한 것이 황성신문 1907년 4월 15일 3면에 보도됐다.

이밖에 홍천 횡성 양양 평강 등 지역에서 ‘부인’으로 호칭된 양반층 여성, ‘조이’로 불린 평민층 여성, 관기 출신 여성, 여비 등 다양한 신분에서 노년층부터 여아에 이르기까지 연령을 망라해 강원여성들이 동참한 모습을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강원여성의 3·1 독립운동

3·1 독립운동은 일제의 주권 침탈과 식민 통치에 대한 전 민족적 저항이었다. 교통이 불편했던 강원도는 전국 타도에 비해 늦은 3월 10일 철원을 시작으로 3월 말부터 4월 초순까지 가장 격렬하게 전개됐으며 5월 9일 양양 운동을 마지막으로 잦아들었다. 강원도내에서는 65,400여명이 참가해 144회 이상 시위를 전개했는데, 만세운동이 시작된 철원지역과 가장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양양지역에서 강원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 1) 철원지역

서울과 교통이 편리하여 정보가 빠르고 공사립 학교가 다수 운영된 철원에서는 3월 10일 철원읍 내에서 강원지역에서 첫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시위는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오후 3시 철원청년회, 농업학교, 보통학교 등 학생 250여명이 중심가로 진출해 만세운동을 벌였으며, 오후 4시 일반인이 중심이 된 시위에 여성이 축이 되어 주동했다. 1915년부터 철원교회 전도사로 시무해온 곽진근(1861~1940)은 교회 부설 정의학교(구 전정의숙) 교사 엄재형과 김경순(1899~?), 김경순과 같은 호수돈여학교 동창 이각경(1897~?), 부인 이소희(1885~?)와 선두에 서서 일반인, 청년과 합세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며 시위했다. 이어 이완용과 친밀한 친일파 박의병을 처단하기 위해 철원 읍내 월하리 집으로 몰려가 박의병을 끌어내어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위협하고 오후 7시 재차 몰려가서 숨겨놓은 이완용과 이완용 부인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곽진근은 박의병에게 “이완용과 그 부인이 너의

집에 머물고 있음이 틀림없으므로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살해할 것이다”고 하며 집 대문 부근으로 끌고 나와 군중의 기세를 돋웠다. 곽진근을 비롯한 여성들은 헌병대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새벽2시까지 박의병을 위협했다. 이들 철원여성은 10일에 이어 이튿날인 11일도 700여명 군중의 선두에 서서 중심가에 집결해 경원선이 지나는 철원역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강원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철원여성이 피체됨으로써 격렬하게 활동하였음을 알려준다. 이튿에 걸친 만세운동 선두에 서고 친일파를 위협한 일로 병합죄에 해당되어 모두 징역과 벌금이 언도됐다. 1919년 9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요죄 및 건조물침입죄 병합죄로 곽진근은 징역 6개월, 김경순과 이각경은 징역 4개월 및 벌금 20원, 이소희는 징역 3개월 및 벌금 20원을 언도했다. 성결교회 교역자로 1915년 경성성서학원을 졸업하던 해부터 철원교회에서 시무한 전도부인 곽진근은 1919년 11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과료 10원이 최종 언도됐는데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기록돼있어 정정이 요구된다. 이각경과 김경순, 이소희 등 여성독립운동가의 이후 행적이나 생애는 확인되지 않고있다.

### 2) 양양지역

양양군 3·1독립운동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강원도내에서 가장 크고 격렬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중적인 독립운동이었다. 양양은 유교와 기독교계 두 갈래로 3월 말에 추진됐는데 4월 4일부터 9일까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개됐다. 일제측 기록만 보더라도 7개리 132동리

중 6개면 82동리에서 4,600명 실제 6,000명 이상 참가한 대규모 시위였다. 11명 사망, 50명 부상, 체포인원 1,000명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와 희생을 치렀다.

유학계는 고종 인산에 참례하고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동생 이국범, 아들 이능렬과 함께 쌍천학교 졸업생들을 설득하여 만세시위를 추진하였다. 기독교계는 개성 호수돈여학교 학생 조화벽이 개성 지역 3·1독립운동에 참가한 뒤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향했다. 친구 김정숙과 경원선 기차편으로 원산에 도착해 다시 배편으로 대포항에 입항하는 귀향길에 일본경찰의 엄중한 감시를 뚫고 독립선언서를 가져와 양양감리교회 청년이자 양양면사무소 급사로 있던 김필선에게 인계해 운동을 촉발시켰다. 교회 청년과 학생 등은 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조화벽도 태극기를 제작했다. 독립선언서 전달은 단순하고 쉬운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실상은 3·1독립운동 시위에서 낭독하고 일반에 배포함으로써 시위를 촉발·확산시키는 중요한 매체이다. 조화벽이 독립선언서를 건넬 때까지도 양양이 잠잠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각기 준비하던 유교계와 기독교계는 주동자들이 체포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4월 3일 통합해 시위를 전개했으며 이튿날 4월 4일 양양장날을 기회로 한층 격렬하고 치열하게 활동했다. 무력 진압이 가해지고 주동자 검거 선포가 일자 양구로 피신해 숨어 지내다 학교로 복귀해 호수돈여학교를 졸업한 뒤 공주 영명여학교 교사가 되었다. 이곳에서 류관순 일가와 인연이 돼 1925년 오빠 류우석과 결혼했다.

조화벽은 서울 배화여학교, 개성 호수돈여학교, 원산 루씨여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봉급 중 상해 임시정부 독립자금으로 십

일조를 하고 여성과 노동자 권익 옹호 사회운동과 육영 사업을 원산과 양양에서 지속했다. 1928년 6월 18일 원산 적전교를 지하도로로 개축하면서 우마차가 통행하지 못해 노동자들이 집 임차료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때 조화벽은 실행위원으로 나섰으며, 1932년 고향 양양으로 돌아와 무산아동 교육시설인 정명야학원 주간부 개설에 적극 나서 1935년 4월 8일 주간 신입생 70명으로 개원하고 1937년 11월 양양부인사회 창립 때 이사로 활동했다.

### 3. 일제가 감시한 강원여성

3·1 독립운동 이후부터 해방 때까지 독립운동 공적으로 유공자로 인정된 강원여성은 전무하다. 이 시기에 강원여성의 항일독립운동은 근우회 활동에 관한 일부 내용 외에는 아직 전모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일활동을 하고도 뒀안길에 묻힌 강원여성을 발굴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일제 경찰당국이 작성한 식민통치에 반대, 반항하는 행동을 취했거나 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해 작성 관리했던 신상카드 자료를 통해 항일 강원여성의 존재와 활동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경찰부에서 작성 관리한 감시대상인물 신상카드 4,858명 6,264건의 자료가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상에 공개돼있는데 그 중 강원도를 본적이나 출생지, 주소로 두고 있는 여성을 추출한 결과 22명으로 전체여성 179명 중 12.2%이고, 강원인 450명 중 4.8%를 점하고 있다. 그 중 보안법, 치안유지법 등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으

로 수감되거나 검거된 강원여성은 18명 21명으로 확인됐다. 주정원과 주보배는 동일 인물로 18명을 출신지역으로 보면 양양과 철원 각 3명, 강릉 김화 춘천 통천 각2명, 양구 이천 홍천 회양 각1명인데 계화성(철원), 김경화(양양), 김성녀(양양), 남궁경순(홍천), 박경자(김화), 박성녀(양양), 왕종순(철원), 윤경옥(춘천), 이남규(통천), 임춘자(강릉), 전선녀(김화), 전숙희(통천), 주보배(양양), 주정원

(회양), 지은원(춘천), 최윤숙(이천), 한수자(양구), 함귀래(강릉), 허균(철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서울 경기지역에 살면서 항일 활동을 했거나 강원도내서 항일 활동을 전개하다 경기도경찰부 산하 서대문경찰서 등에 검거되거나 서대무형무소 등에 투옥됐다. 이들 18명의 신상카드 작성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표 1〉 일제경찰 신상카드 중 강원여성 항일활동내용요약 (검거 또는 연도 연도 순)

이름 한자 (이명)	생년월일	주소	신상카드 사진 촬영일	연도(검거)기관	연도(검거) 연월일	죄명	형기
김경화 金敬和	1901. 7. 18	양양군 사현 광석리 83 (본적 출생) 경성부 배화여학교기숙사 (주거)	-	경성지방법원	1920. 4. 5	보안법	징역1년 집행유예
박경자 朴景子	1903. 11. 17	김화군 금성면 방촌리 (본적 출생) 경성부 배화여학교기숙사 (주거)	-	경성지방법원	1920. 4. 5	보안법	징역6월 집행유예
왕종순 王宗順	1905. 11. 18	철원군 철원읍 율하리52(본적 출생) 경성부 배화여학교기숙사	-	경성지방법원	1920. 4. 5	보안법	징역6월 집행유예
윤경옥 尹璟玉	1902. 11. 27	춘천군 신북면 천전리(본적 출생) 경성부 배화여학교기숙사 (주거)	-	경성지방법원	1920. 4. 5	보안법	징역6월 집행유예
이남규 李南奎	1903. 2. 15	통천군 학이면 화동리 3통5호 (본적 출생) 경성부 배화여학교기숙사 (주거)	-	경성지방법원	1920. 4. 5	보안법	징역6월 집행유예
지은원 池恩源	1904. 8. 9	춘천군 신남면 송암리 222 (본적 출생) 경성부 배화여학교기숙사 (주거)	-	경성지방법원	1920. 4. 5	보안법	징역6월 집행유예
한수자 韓壽子	1903. 8. 20	양구군 양구면 중리 50 (본적) 양구군 북면 서호리 (출생) 경성부 배화여학교기숙사 (주거)	-	경성지방법원	1920. 4. 5	보안법	징역6월 집행유예
최윤숙 崔允淑 (崔李熙, 崔寶貝)	1912. 9. 22	이천군 이천면 향교리(본적 출생) 경성부 팔방 80 (주거)	1930. 1. 29	서대문경찰서	-	보안법	-
주정원 朱貞媛 (朱寶培 朱貞淑 金明淑 金永淑)	1908. 1. 25	회양군 회양면 지석리(본적 출생) 경성부 와룡 50 (주거)	1930. 9. 16	용산경찰서	-	치안유지법	-
			1930. 12. 13	서대문형무소	1930. 9. 17 (입소연월일)	치안유지법	-

이름 한자 (이명)	생년월일	주소	신상카드 사진 촬영일	연도(검거)기관	연도(검거) 연월일	죄명	형기
박성녀 朴姓女 (朴文星)	1911. 10. 16	양양군 내물치 127(본적 출생) 경성부 공평(주거)	1930.12. 8	서대문형무소	1930. 12. 1	치안유지법 출판법	1년1월1일
전숙희 田淑姬 (田淑禧 田惠珠)	1916	통천군 흡곡면 (출생) 경성부 계동 100-6 (주거)	1931. 9. 26	서대문경찰서	-	-	-
허균 許均 (허마리아)	1904. 6. 14	철원군 동송면 관우리 452 (본적 출생) 경성부 청엽 3정목 121(주거)	-	-	1935. 12. 20	치안유지법	징역2년
임춘자 林春子 (林良麗)	1915. 5. 18	강릉군 강릉읍 대정정 23 (본적 출생 주거) 삼척군 하장면 (출생) 대구부 동운 186 (주거)	1934. 4. 5	서대문경찰서	-	치안유지법	-
			1942. 3. 16	서대문형무소	1944. 10. 7	징역2년	치안유지법
함귀래 咸貴來	1911. 7. 5 (1911. 2. 2)	강릉읍 금정 18 (본적) 고성군 간성면 신안리 (출생) 강릉군 강원도립병원 기숙사 (주거)	1934. 4. 5	서대문경찰서	-	-	치안유지법
			1934. 6. 7	서대문형무소	-	치안유지법	예심면소
남궁경순 南宮庚順	1911. 11. 30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본적)	1936. 5. 18	형사과	-	-	-
전선녀 全先女	1914. 5. 15	김화군 근동면 (본적) 경성부 마장 68-30 (주거)	1938. 5. 9	서대문경찰서	1940. 4. 5	보안법	징역6월
김성녀 金姓女 (金瓊熙)	1895. 12. 7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102 (본적)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 (출생) 경성부 충신 31의 6 (주거)	1940. 7. 11	서대문형무소	1942. 7. 14	치안유지법	징역2년6월
계화성 桂華成 (蔡鳳浩 桂鳳浩)	1894. 2. 5	평북 선천군 선천면 창전리 16 (출생) 철원군 철원읍 부전리 100 (주거)	1942. 4. 17	서대문형무소	1942. 6. 15	치안유지법, 불경 등 안녕질서에 관한 법	징역1년

김경화, 박경자, 왕종순, 윤경옥, 이남규, 지은 원, 한수자 7명은 1920년 서울 배화여학교 3·1 독립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종로경찰서에 연행돼 1개월 정도 구류됐다가 1920년 4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죄로 김경화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 외 6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으나 스미스 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해 다음날 출소할 수 있었다.

최윤숙은 이화여고보생으로 광주학생운동 연장 선상에서 1930년 1월 15일 서울지역 남녀 학생들이 일제히 만세운동을 전개할 때 여학생 주동자 8명 중 한명으로 당일 서대문경찰서에 검거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주정원은 후보배, 주정숙, 김명숙, 김영숙 등 이명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다 1930년 9월 16일 용산경찰서에 검거되고 그해 12월 13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박성녀는 근우회 강릉지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 공평에 거주하면서 노동절 취지와 치안유지법 철폐 등을 담은 격문 배포 활동을 벌이다 검거돼 옥고를 치렀다. 남궁경순은 1931년 4월 모교인 홍천 모곡학교 교사로 부임해 민족사상을 고취하며 교육하다가 1933년 홍천 십자가당 사건으로 검거됐다. 임춘자는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다 1934년 서대문경찰서에 1차 검거됐으며 이후 대구 목촌간호부회 등에서 활동하다 1944년 10월 7일 징역2년이 언도됐다. 함귀래는 강원도립 강릉병원 산파간호부로 재직하면서 비밀조직을 결성해 반제국주의동맹사건으로 1934년 서대문경찰서에 검거됐다. 허균은 1933년 하반기 서울 동대문 외곽지대의 제사·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들과 용산공작소 영등포공장의 노동자들이 연쇄적으로 파업을 일으킬 때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검거돼 징역 2년을 언도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37년 9월 18일 출소했다.

1940년대 수감된 전선녀, 계화성, 김성녀 3명은 신상카드에 기록된 이외 행적이나 생애는 확인되지 않고있다. 향후 이들 여성의 상세한 항일활동상 및 성장 과정, 가족 관계, 행적 등 추후 조사를 통해 강원여성 항일활동상 전모를 파악해야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들 외에도 또 다른 여성이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도 있어 체계적인 연구 조사가 요청된다.

#### 4. 여성독립운동가와 변혁적 리더십

일제 식민지 해방에 밑거름이 된 강원여성의 항일독립운동은 그 자체로 역사이기도 하며, 이 시대

에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국가와 민족성을 일깨우는 정신적 유산일 뿐 아니라 여성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여성 리더 역할 모델로서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산이다.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약자라는 위치에 굴하지 않고 자기 역량을 주체적으로 개발하고 국권 회복과 독립이라는 이상을 지향하며 가족을 넘어 더 큰 공동체적 가치를 온 몸으로 겪어내며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선 여성 한 명 한 명 리더이고, 리더십을 발휘해온 인물이다. 현대 조직이나 기업문화가 다르고 사회적 배경 역시 다르지만 이들 선각 여성의 경험은 정치경제 사회문화 정보환경 등이 급변하고, 국경 없는 국제적 영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 가야 되는 예측 불가의 시대에 있어서 시사점을 던진다. 40년의 긴 시간을 국내외에서 의병투쟁 및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생전에 생생한 기록을 남겨 생애와 활동상이 상세하게 밝혀진 윤희순을 통해 리더십측면에서의 가치를 조명해보았다.

1980년대 전통적인 리더십인 ‘거래적 리더십’의 상대 개념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으로 등장한 ‘변혁적 리더십’은 가치를 강조해 조직구성원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능력을 개발하는 리더십이다. 거래적 리더십이 부하 직원의 욕구를 파악해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리더십이라면 변혁적 리더십은 이상과 도덕적 가치에 호소해 동기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비전을 공유하며 혁신을 도모하는 리더십이다.

윤희순은 남녀 역할 구분이 분명한 유교적 생활 방식의 울타리에 갇혀있던 여성들에게 ‘국권’, ‘민족’, ‘충효’, ‘남녀동등의식’ 등의 가치를 일깨워 의병운동이라는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역량을 발휘한 변혁적 리더십 유형의 소유자이다.

한말 남성 의병지도자는 대개 명망가이거나 학식이 높거나 높은 직책, 연령이 많은 점 등 명성을 고려해 의병장에 추대되는데 윤희순은 의병 식량 문제를 해결과정에서 술선수범하는 태도와 과단성있는 면모, 감성적인 설득과 의병지식 자극으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리더의 위치를 확보했다.

윤희순은 자신이 지은 의병가사와 경고문, 포고문 등을 이웃 여성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쓰도록 지적적인 자극을 하며 여성들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촉진했다. 또 아직 의병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과 친일파 매국노를 글로 경고할 때는 박제된 책 속의 훈계가 아니라 동물에 비유하는 등 감성적 설득과 유연한 표현을 하고있다. 변혁적 리더는 조직과 공동체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모범을 보여줄 때 이상적이라고 지적하는데 윤희순은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고있다. 윤희순은 1910년 국권 상실되자 1911년 뜻있는 의병가족과 함께 만주로 집단 망명해 노학당을 운영하며 계몽활동을 하고, 청년을 독립군으로 보내는 활동을 계속했다. 자녀 세 명 모두 독립운동에 투신해 ‘가족부대’로 불렸으며 일본경찰에 체포된 장남이 무순감옥에서 고문 끝에 숨지자 단식함으로써 치열한 저항의 삶을 마감했다.

윤희순은 자손들에게 충효정신, 애국정신, 시대

정신, 정의감을 강조하고 생활태도로는 9개항은 다음과 같다.

내 위에는 더 큰 분이 나를 보고 있으니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하고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누가 무엇을 부탁하거든 선뜻 대답하는 것을 삼가거라.

누가 무엇을 물어보거든 어림짐작으로 대답하지마라.

마주 앉아 이야기 할 때 눈동자를 자주보지마라.

앞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에 하느니라.

아랫사람이 인사한다고 앉아서 가만히 받지 아니하느니라.

천민이라도 내 집을 찾아오면 반가이 맞아주고 반가이 보내주어라.

남의 말을 입에도 담지 말며,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남의 말을 해야 하느니라.

모두 타인에 대한 배려 태도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자질이 있어도 높은 도덕성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신뢰를 잃고 거부반응을 일으켜 비우호적이 된다는 점에서 윤희순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 타인에 대한 배려 태도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리더십이다. 격동의 시대에 이상을 품고 공동체의 길을 개척해간 여성항일독립운동가 한명 한명의 경험을 현대에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여성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생생한 만남의 장이 확대되길 바란다.

#### 참 · 고 · 문 · 헌

강만길·성대경(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문화재보호협회 철원군지부(1977). 「향토지 철원 김화 평강」

박미현(2008). 「강원여성의 항일의병 활동상과 윤희순의 리더십」, 세미나자료집, 강원여성연구소.

엄찬호·박미현(2008). 「강원여성항일독립운동사」, 광복회강원도지부

이명화(2011). 「3·1운동과 조화벽의 삶」, 3·1여성동지회 창립 제44주년 기념 제17회 한국여성독립운동사 학술연구발표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소(1999).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홍은희(2010). “언론사의 여성 리더십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한국의 비전과 정책과제<sup>1)</sup>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들어가며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서로 다른 체제를 동일한 제도 및 정치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는 체제통합과 각 체제 내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의 변화를 포괄한 사회통합을 의미한다. 그동안 체제통합과 관련한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가능성 여부의 사례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통일에 있어서 사회통합 개념은 법적, 정책적 영역에서의 통합(제도통합 혹은 체제통합)과 통합된 제도에 반응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차원의 통합(의식통합 또는 가치통합)을 담고 있다. 통일을 논의할 때 어떤 통합이 우선해야하는가 보다는 갈등의 양태나 본질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의 충돌이 크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가치 및 제도에 대한 부적응과 사회적 배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접근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지금까지 여성들이 축적해온 환경, 민생, 문화 등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활동과 화해협력의 역량과 경험들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남북한 주민의 첫 만남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여성들이 물꼬를 열었으며 비정치적 비이념적 영역에서의 남북한 여성으

1) 이 글은 본원에서 2015년 현재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연구」 수행과정의 일부로 장혜경 외(2014)의 「통일대비 효과적인 가족정책 지원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기반이 되고 있으며, 2015년 8월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광복에서 통일로, 여성이 쓰는 한국사회 미래전망”(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여성사회회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으로 인용은 삼가 해 주기 바람.

로서의 공통경험들은 남북교류를 촉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김은주 외, 2014: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일 분야는 영역, 정책결정과 정, 운동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체제통합과 같은 거대담론의 통일논의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관련 의제들은 주변화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 관통하는 주요 내용으로 여성은 통일준비의 주요한 협력주체이며 여성관련 문제의 해결과 성 인지적(gender perspective) 통일 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글은 남북한 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통일 한국의 사회경제적 전망에서 여성 관련한 이슈를 조명해 보고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한국의 비전과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이 전제하는 통일시나리오는 평화적 분단을 거쳐 민주적 통일로 이르는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이다. 물론 북한 체제의 내부 붕괴로 인한 급속한 시나리오 역시 가정할 수 있지만 점진적 통일이든 급작스러운 통일이든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혼란의 본질적 내용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영토적 분단 상황이 종료되는 즉각적 시점을 통일한국으로 상정하였다.

## 2. 남북한 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적 특징 전망 및 여성 관련 이슈

### 가. 남북한 여성들에 대한 이해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적 특징전망에서 여성관련 이슈의 조명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한과 다른 사

상과 경제체제(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하에서 살아온 북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장혜경 외(2014)는 남북한 여성과 가족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국가체제 하에서 가치관을 기반으로 가족형성 및 관계, 여성의 일과 노동지위, 그리고 사회참여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등으로 종합하여 논의하였다.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지니는데 결혼적령기를 의식하고, 가정에서의 내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의의를 더 두고 있거나, 독신생활이나 연하남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경향으로 여성들이 폭력적이고 무능한 남편에게 이혼을 제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거나 최근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도 늘고 있으며,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일기 외, 2012:208). 이러한 현상은 통일 이후 혼인이나 가족의 구성에 있어서 전통적 가족 형태의 약화 추세와 함께 북한여성들의 경우 남한여성들의 가족관을 따라가는 추세도 늘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김규륜 외, 2012:88-89; 장혜경, 2014: 89). 한편 직업의식 및 취업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남한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이나 자아실현의 기회의 측면이 강한 반면 북한여성들은 집단주의에 기반하여 취업은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회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이 강하다(한국정치학회, 2001:11; 김규륜 외, 2012:89).

이러한 특성들은 북한이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남북한 통합사회에서는 북한 주민들(특히

여성들)의 가치관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 추세인 전통적 가족의 약화와 여성의 역할 변화의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김규륜 외 2012:89). 다만 남한사회의 현재와 같은 속도와 범위로 복지가 심화·확대된다면, 통일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구에 대한 동일한 복지의 보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사회보장부분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려 전통적 의미의 여성역할과 가족기능(부양 등)을 강조할 수 있기도 하다(김규륜 외, 2012:90). 따라서 통일한국사회에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지원은 통일한국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녀간 실질적 평등문제(일·가정 양립문제, 노동지위, 여성에 대한 폭력 등)는 관건이 될 것이며 이는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적 전망으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 나.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적 특징 전망 및 여성관련 이슈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적 전망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인구 및 산업 측면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의 이동 및 특정지역에의 인구집중, 남북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노동시장 재편, 가치관 갈등 및 사회경제적 지위 격차, 인구고령화 등이다<sup>2)</sup>.

**지역이동 및 인구집중과 여성관련 이슈 :** 한반도 통일일은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과정으로 이중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구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된 경제적 환경 속에

서 생존이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이동, 즉 새로운 삶의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의 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상대적으로 빈곤화되고 실업률이 높은 북측지역에서 남측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구이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용우 외, 2010:244). 다만 통일방식, 제도적·행정적인 통합의 속도 등에 따라 인구이동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량의 인구이동과 도시 집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성관련 이슈들로는 우선, 치안 및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여성 및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활발한 인구 및 노동이동에 따른 가족의 이산이나 해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여성들의 불평등한 상황이 심화되거나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질수 있다. 셋째, 도시 내 육아 및 보건 등 모성보호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육아 및 보건에서 국가의존도가 높았던 북한 출신 사람들에게 육아 관련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남북한 출신 사람들의 노동 기회 상실, 특히 여성들의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미숙련, 저임금 노동이라 여겨지는 노동영역에 주로 여성들과 이주민들이 분포되어 있는 현실에서, 통일 이후 미숙련 노동자이면서 저임금 노동자로 여겨질 수 있는 북한 출신 사람, 특히 북한 출신 여성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재편과 여성관련 이슈 :** 통일

2) 본 절은 장혜경 외(2014)의 연구에서 통일연구원의 김규륜 선임연구위원과 홍민 부연구위원과 논의하여 작성된 글을 요약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은 기존의 이질적인 남북한 경제체제를 통합하는 대규모 산업구조 조정과 재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물론 통일이후 경제통합 정책방향에 따라서 통일한국의 산업구조는 급격한 변동의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은 남성에 비해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 여성의 남한 사회로의 이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김규륜 외, 2012:91) 이는 성별간, 남북한 여성간, 계층간, 종사상 지위간, 지역간 다양한 측면에서 통일한국에서의 전체 여성들 또는 일부 여성들(특히 북한여성들)에게 노동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여성들의 주변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김규륜 외, 2012:91; 장혜경, 2014:14-15). 그런데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북한인구의 남한 이동은 주로 교육과 일자리 등의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의 남한 유입이며 결국 남북한 주민들간의 지역적 갈등, 경제적 갈등, 여성인력경쟁력과 사회경제적 갈등문제가 두드러질 것이다(김규륜 외, 2102:9; 장혜경, 2014:15). 독일의 경우 젊은 층의 서독이주가 많았는데, 이는 학업을 시작한 이유에서거나 이제 막 학업 및 교육을 마친 젊은이들의 취업 목적이 컸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독 지역에 근거한 직업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신이 많았기 때문에 서독 이주에 따른 거래비용이 적었다. 또한 동독보다 나은 서독의 노동시장 여건과 소득기회 등을 쫓아서 유연성 있게 이주가 가능한 연령층이기 때문이었다(김창권, 2010:38). 통일한국이 독일의 사례를 동일하게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나, 남북한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해 볼 때 젊은 연령층 가운데 특히 여성들의 이주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김규륜 외,

2012:92).

**가치관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여성관련 이슈 :** 통일 은 남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서로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그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신(젊은) 세대와 구 세대 등의 젠더 및 세대간 갈등의 표출로 특히 북한가족의 이산이나 해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결혼 및 가족형성 양상에서는 가부장적 권위를 중요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북한 여성들이 남한 남성들에게 선호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북한 여성들은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남한 남성과의 결혼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통일한국에서의 주류 사회형성과 하위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일정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김규륜 외, 2012:93).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지역 이동은 남북한 주민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을 낳는다. 남 북한 출신 주민이 접촉하고 생활공동체를 영유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치관 충돌, 새로운 가치관과 과거의 가치관의 충돌이 야기될 것이다. 북한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종래 ‘11년제 의무교육’에서 2012년 9월 25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결정) 전체적으로 문해력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대학 이상의 고학력 비중은 대학진학률을 볼 때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학 등 고등교육에 있어서 남녀 격차 역시 남한에 비하여 북한이 더 크다. 2008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볼 때, 22세 이상 연령층에서 고등교육 재학 비율이 여성의 경우 5%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15%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 북한에서 이러한 교육수준의 차이는 노동력의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 반면, 고위관리직, 전문직 등 지위가 높은 직업은 남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과 직결된다. 이러한 경향이 통일한국에서도 지속된다면, 북한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김두섭 외, 2010:309-310; 김규륜 외, 2012:86에서 재인용). 북한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정치적 분야와 경제적 분야의 양 측면에서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남북한 사회 공히 낮은 비율을 보인다고 할 때, 통일 한국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보장받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북한 여성의 경우 자율적인 정치활동 경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통일한국에서 정치세력화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북한 여성들은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이라는 조직을 통해 정치 및 사회참여를 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닐 뿐더러, 정치영역 내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낮은 편이고, 현재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신념의 차이로 인해 통일한국에서 정치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의 정치적 소외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선적으로 통일로 인한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은 높은 실업률을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독일 통일을 비롯하여 체제전환국들의 여러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체제전환의 과정은 실업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 중에서도 실업의 문제는 주로 여성의 문제로 이어졌다. 통일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1년 이상의 장기실업을 경험한 실직자 중 동독인은 57%, 서독인은 43%에 달하고, 이들 동독인 가운데 동독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6%,

서독인 가운데 서독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에 달하였다. 동독여성의 장기실업률은 통일 이후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도기숙, 2008). 통일한국에서도 남북한 여성 모두의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남북한 사회에서 통일한국에서 새롭게 재편될 산업구조와 경제적 투자 과정에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적으로 고용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북한 여성은 실업의 상황에 놓일 것이다. 더욱이 산업구조의 재편과 북한 주민의 지역이동은 남한 여성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대적으로 북한 남성의 노동력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간주되고,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는 한, 남북한 여성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남북한 여성의 실업률이 모두 높아질 수 있다.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통일 이후의 여성 관련 법이나 정책들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젠더 불평등이 가속화될 수 있다. 통일 및 통합 비용으로 인해 여성복지정책이 축소되거나 과거 북한 사회가 보장했던 다양한 여성 및 보육 정책들이 폐기될 경우 여성들의 삶의 질은 현격히 저하될 것이다. 더욱이 여성에 대한 정책은 일자리와도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는 바, 정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성은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여성 스스로 일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단적으로,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진보적인 동독의 여성 관련 법이나 정책들이 폐기되기 시작했고,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한 국가보조금, 가사휴가제도 등의 폐기되면서 구동독 여성의 삶이 열악해졌다(정현백, 2005:48).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 여성 간의 갈등 또한 중요한 이슈이

다. 독일의 경우 동독과 서독 여성 사이의 갈등, 자본주의 진영의 여성과 구사회주의 진영의 여성 사이의 갈등이 있었던 바를 고려하면 남북한 여성간 갈등은 노동, 교육, 정치 영역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의식이 높아가는 남한 여성과 그렇지 못한 북한여성 사이의 의식 격차는 평등과 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러한 사례들이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주민들은 장기간 식량난 속에서 건강 수준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그 결과 2008년 평균수명은 1993년 평균수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최근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모성건강의 취약과 영유아의 영양결핍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2009년 UNICEF MIC조사는 “5세 미만 아동의 지역별 영양평가 자료를 근거로 북한 전 지역의 저체중 및 만성·급성영양 결핍 아동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저체중 아동이 18.8%, 만성영양결핍 아동이 32.4%, 급성영양결핍 상태의 아동이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전체 5세 미만 아동의 56.4%를 차지하는 비율로 높은 수치이다(황나미, 2012:67-68; 김규륜 외, 2012:87). 출산 전인 태아기 및 영유아기의 정상적인 발육과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틀이 되는 바 5세 미만의 절반 이상의 아동이 영양결핍상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 구조적으로 2030년에는 이들이 23~29세의 청년층을 구성하는 인구층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양육 및 부양책임을 분담해야 할 계층 절반 이상이 복지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5세 미만 아동 건강이 ‘삶의 건강한 출발’을 보장한다고 볼 때, 북한의 남녀 청년층 과반이 영양결핍으로 인해 저성장상태일 가능성이 높

다(김규륜, 2012:87). 그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고, 그 결과 북한 주민은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에 놓일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통일 이후 그 격차를 더 넓힐 가능성이 높고, 남북한 주민 사이의 계층화와 그로 인한 갈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성장으로 인한 외형 차이가 선택적인 결혼과정에서 차별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통일한국에서 겪게 될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젠더 및 계층적 갈등과 불평등의 골 역시 더욱 깊어질 것이다(김규륜 외, 2012:87).

**저출산·고령화와 여성관련 이슈 :**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에서 인구의 총수는 당연히 증가할 것인데, 인구분포에서 증가한 인구는 주로 고령층 인구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통일한국 사회는 고령화시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일 이후 인구 구조의 변동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고령화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2010년 현재 남북한 총인구는 7,306만 1천명이다. 매년 북한인구의 증가비율이 남한인구의 증가비율보다 더 높아 2014년부터는 북한인구가 남한인구 절반을 넘어설 전망이다(김규륜 외, 2012:83). 북한 인구의 정점은 2,653.6만명이 되는 2037년으로 예상된다. 201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남한인구 추계는 2030년 5,216만명까지 성장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2060년 4,396만명(1992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김규륜 외, 2012:84).

남한과 같이 이미 북한도 저출산 상태로 진입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현상도 1993년 5.4%에서

2008년 8.7%로 3.3% 증가하여 상당 수준에 이른 상태이다. 더욱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결혼과 출산을 연기 또는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출산 및 양육 관련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이후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한 사회에서 보편화된 소자녀관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섭 외, 2010:305). 북한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1955~1974년생 베이비붐 세대들이 2020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게 될 것이므로, 2030년 이후 통일한국에서의 고령화는 급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통일한국에서도 역시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의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급속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김규륜 외, 2012:86).

이러한 사회경제적 전망과 여성관련 이슈논의들은 통일이 1+1=2가 아니며 '1+1=(+)무한대수'이거나 '(-)무한대수' 일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한대수이기 위해서는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물질적·정신적으로 통일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을 할 때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치관 및 사회제도 전반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탈피를 통한 성 평등 사회가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통일한국에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 정책적 함의

통일한국은 구성원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

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이는 또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들에서 남북한 사회와 제도들을 관통하는 핵심줄기는 가부장적 가치관과 문화라는 점이 부각된다. 분단의 상태에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정한 희생을 치러야 했던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정은 어려울 것이다. 독일경험의 교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부장적 문화의 극복을 위해 법제도적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과정에 여성들의 소리와 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이 맞물리도록 함으로써 체제전환 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여성의 역할은 정부간의 교류에 막힌 문제를 소프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게 된 것이나 2010년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한 예이다. 또한 199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던 남북 여성들은 일본 여성들과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간 대화를 하게 하는 역할도 하였다.

결국 통일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정부는 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대안들이 통일 과정에서 법제도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여성을 포함한 노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역할이 보장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상생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성단체들은 정부정책들이 남북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가

부장적 문화를 해소하기 위한 관심과 개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사회 전체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데에 지체를 겪지 않도록 여성단체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 3.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한국의 비전과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남북한 여성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적 전망과 여성관련 이슈, 그리고 통일독일의 경험 등을 통해 볼 때 통일한국의 비전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성별노동분업을 벗어나는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통한 좋은 통일”이어야 하며, 이는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의미는 통일논의 및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과 여성가족문제의 해결을 통해 남북한 여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조건의 변화로 통일한국이 보다 성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여성 및 가족 관련 공동의제의 선정과 남북교류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와 역량 강화, 성 인지적 통일기반 조성과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집약된다. 특히 통일준비에 있어서 여성가족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는 남북한 여성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난 수차례에 걸친 남북한 여성교류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북한여성들은 남한여성들의 페미니즘 안전이나 여성운동의 의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

지만 여성으로서의 공통의 경험, 여성건강이나 자녀양육 등과 같은 여성가족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과 공감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준비과정에서 남북한의 여성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남북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임과 동시에 남북한 교류를 촉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가. 주요 과제

**남북한 여성·가족 공동의제의 선정 :** 그동안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통하여 추진해왔던 남북한 여성들의 이산가족문제, 위안부문제 등외에 남북한 여상가족정책과 관련하여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에 반영되고 실현되어야 할 여성들의 필요 및 요구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여성가족의제들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면, 독일의 경험에서처럼 여성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안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안에 밀려 부차적 사안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의제의 선정과 추진은 남북한의 체험적·실천적 교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남성중심의 정치, 산업경제중심의 교류로부터 문화, 생활교류로의 이동과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체제전환 사회의 통합에 실질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안된 주요의제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남북한 공동 주요 가족(여성)의제

의제	세부 과제
여성일자리 및 고용안정화 관련	- 여성인력개발 교육 - 통일사회의 사회통합적인 노동시장 구축 및 여성지위 모델 개발
일·가정양립 및 돌봄관련	- 모성보호, 보육 및 노인돌봄 지원 - 양육과 돌봄 관련시설 운영 및 지원
취약계층 및 여성관련	- 여성의 빈곤화, 여성건강 - 취약계층 가족건강 관리 프로젝트
여성인권 및 안전 관련	- 군 위안부 문제 등 여성폭력 대응 -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인권 실태와 예방 - 여성 대상 범죄 유형 파악과 예방
가치관 관련	- 이질적·동질적 문화의 공유 · 풍속, 민속, 역사, 예술, 언어 등 남북한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점 공유(제외국과 차별화되는 민족공동문화재의 남북 및 재외동포의 포괄적 공유·공감)
가족 관련	- 가족 개념(다양한 가족결합)과 다양한 가족의 현실 인식 -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가족상, 여성상 정립 - 사회통합적인 대안적 가족모델 개발 - 성평등 가족관 및 가족 관련 법제 정비 - 지역간 이주노동과 가족해체에 대한 대응 - 전환기 가족해체와 여성, 아동문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여성지위 관련	- 여성정치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 - 남북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여성할당제 등) - 남북한 여성 지도력 함양과 역량제고 - 남북한 여성지위 지표 및 백서 발간 - 남북여성협의체 조직 및 운영

자료: 장혜경 외 (2014), p.66

**남북교류 활성화 :** 남북공동의제 선정을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들의 상호인식과 신뢰, 이해의 축적을 위한 교류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회 보장정책은 당과 국가 주도에 의해 정비되었다. 정권 수립 초기부터 여성들을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에 의해 남녀평등을 의식화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남녀평등의 권리가 가족 내 성별분업과 일상생활에 뿌리박힌 가부장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까지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반면 남한은 시민운동이 여성 및 가족 관련 복지정책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남한 여성

들은 주체적으로 여성운동을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제도정치와 정부 등 공적 영역에서의 남녀평등권 보장과 실현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공동의 의제를 추려내는 작업은 상호차이에 대한 고려와 보완적 과정이다. 하나의 예로, 이산가족의 문제는 독일과 중국양안의 사례와 같이 유연성 및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남북한 여성들이 앞장서서 정치적 차원이 아닌 가족적·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승현, 2014). 서독주민들의 동독의 친척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독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독정부의 동서독 주민간의 접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

입은 바가 크다. 앞서 언급한 공동의제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정부차원 교류의 시작은 민간차원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추진방안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와 역할 강화 :** 공동의제 선정과 남북여성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적 역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성평등적인 관점이 통일정책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정책대상자 또는 사회정책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제도 구성 및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남한은 1990년대 들어서 이전 시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성정책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한편, 북한은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전국적 여성조직인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이하 '여맹')이 있다. 그러나 여맹은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고 그 주요기능은 정치학습에 있다. 더욱이 1990년에 제정된 북한 가족법은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부각시켜 종전 법령들보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평등사회의 실현에는 강력한 집행체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역량 또한 중요한 바, 이는 여성들의 관점이 반영되는 정책의 힘으로 통일 이후의 가족의 삶과 여성지위 관련 많은 한계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금순 외, 2009:122-123).

**성 인지적 통일기반 조성**과 **거버넌스 구축 :** 2008년

이후 남북 여성 교류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통일의 길은 결코 일직선적인 대로가 아니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듯이 통일 과정에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거칠 것이다. 전쟁 이후 70년간 대결과 반목을 해온 남북관계에서는 통일한국사회에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예고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에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공히 성별노동분업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탈피를 위한 성 인지적 통일기반의 조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거버넌스의 구축은 우선, 국내 여성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 내에서 진보-보수 정당, 사회단체 여성계의 교류와 협력, 한국 내 중앙과 지방의 여성계의 교류와 협력, 한국 내 계층별·직업별 여성계의 교류와 협력 등 이들 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 여성 거버넌스의 형성이다. 남북 여성 거버넌스에는 정부, 정당, 사회단체, 지역별 여성단체, 계층별·직업별 여성계를 아울러 구성해야 한다. 큰 틀에서 보면 남한의 여성정책은 여성시민단체가 의제를 만들어 쟁점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결과, 즉 아래로부터의 여성정책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의해 여성정책이 수용되면서 남녀평등정책이 법제도화되어 왔다. 권위주의 정부하에서는 민주화의 목표로 남녀 연대적 활동이 많았으나 일정 정도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이래로 여성운동은 다원화되고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때는 가부장적 문화가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여성정책은 사회주의 여러 국가들의 여성정책들과 유사하게 정부 주도로 위로부터 정책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1970, 80년대 공공부문에서는 남녀평등의 제도화나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여성주의적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런 영향으로 여성운동

은 정부에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가부장적 문화도 널리 고착되어 있다. 이러한 남북의 여성운동의 성격과 여성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보이는 차이를 이해하면서 큰 틀에서 남북여성의 상이한 입장과 정책을 협의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와 같은 남북민간협의체 등을 만드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남북여성이 함께 참여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여성주의적 남북여성 거버넌스는 남북 여성과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남북 여성이 공조할 수 있는 의제와 방식을 넓혀 나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사과와 화해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중국이나 일본, 동아시아 여러 나라 여성들과의 연대를 하되, 남북 여성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남북 여성의 공감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여 국제 사회에서 인신매매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해외탈북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4. 나오며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한국 조명의 중요성은 통일일의 대상인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에 있다. 이에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들이 통일정책의 주변화가 아닌 핵심주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 남북한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성

가족접근의 중요성은 가족구조의 변동과 여성의 노동 및 사회참여 등이 가치관, 가족불안정성, 고용상태, 육아 및 가족복지 등 구성원의 삶이 사회 전체와 역동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탈북가족 및 독일사례 (동독여성 취약계층 전략 등)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통일부, 2014; 장혜경 외, 2000).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들 여성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제도의 평가결과 등은 향후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이슈를 전망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들로 보다 구체적인 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본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2015-2016)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통일한국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 및 사회통합에서 여성가족정책의 중요성과 주요 여성가족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요 심층 주제는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가족의식 및 가족문화 통합방안 연구”,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정책과제”,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변화 전망과 여성정책과제”, “통일한국의 여성아동건강정책과 추진전략”, “북한이탈주민 및 독일사례를 통한 사회통합기반 조성과제” 등으로 산학연 협동연구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및 융합을 위한 여성역할의 중요성과 통일한국 사회 여성아젠더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규륜 · 최용환 · 유재희 외(2012). 정치환경 변화 전망과 가족의 미래 [장혜경 외(2012).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과제].
- 김두섭 외(2010). 북한인구센서스 분석 연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김은주 · 장혜경 · 유시은(2014).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전우택 외(2014).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통일준비위원회
- 김일기 외(2012). 통일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통일 · 북한 이슈 100. 평화문제연구소.
- 김재인 · 장혜경(2000).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 · 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김창권(2010).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인구 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경산논총 제28권 1호.
- 도기숙(2008). 통일 이후 동독지역 여성문화의 변화: 동독여성운동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15권 제3호.
- 이금순 · 고성호 · 안혜영 · 장혜경(2009). 비핵 · 개방 · 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통일연구원.
- 이승현(2014).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현황과 정책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792호.
- 이용우 외(2010). 국토 대예측 연구(II). 국토연구원.
- 장혜경 · 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 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 · 박복순 · 황의정(2014). 「통일대비 효과적인 가족정책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현백(2005). 여성운동과 정치- 통일전후 동독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중심으로. 史林 제24호.
- 통계청 (2010).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2010.11.22. 보도자료.
- 통일부(2014). 「독일통일 총서 8: 여성분야」 와 「독일통일 총서 9: 가족분야」
- 한국정치학회(2001). 「남북한 여성 생활문화 비교연구」. 여성부
- 황나미(2012). 북한주민의 공공 식량배급 수혜상황과 영영취약 아동규모추계.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185호.